

배경변인별 전체로 보면, 언어에 대한 정체성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정체성이 많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이 높으며 제주도 출신과 타지방 출신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민속의 경우 의식주에 대한 정체성은 남자가 여자 보다 높게, 세대가 올라갈수록 특히 30대 이상에서 정체성이 많이 유지되고 있다. 민요에 대한 정체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세대가 올라갈수록 특히 40대 이상에서 많이 유지되고 있다.

사회·문화의 경우 가족·친족·혼인에 대한 정체성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특히 50대 이상에서 많이 유지되고 있다. 공동체의식과 평등의식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40대 이상에서 많이 유지되고 있고 제주도 출신과 타지방 출신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타지방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살면서 特異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할머니들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 <호박을 넣어 끓인 갈치국을 먹는 것>, <장남이라도 결혼을 하면 分家를 시키고 한 울타리 안에 노부모와 결혼한 자식이 같이 살면서도 炊事를 따로 하는 것>, <아들들에게 재산상속과 제사상속을 均分하는 것> 및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심이 강한 것> 등이다.

본 연구의 限界點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타지방 출신들이 자기 고향을 생각하는 것과 제주도를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해 볼 수 있는 조사는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주도 출신으로 다른 지방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밑바탕에 있는 정신이나 가치관을 조사하는 연구가 보편되었으면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 출신과 타지방 출신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서 政治·經濟的 正體性의 有無는 단정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섬 이동설화 고

—비양도 전설을 중심으로—

玄 丞 桓(濟州大 講師)

1. 문제의 제기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아주 오랜 옛날 비양도는 중국 쪽으로부터 조류에 떠내려 한림읍 앞바다에까지 와

서 떠돌아 다니고 있었다. 이때, 임신한 해녀가 바다에 들어가 해초를 캐다가, 난데 없는 큰 섬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해녀는 이상히 생각하여 이 섬에 올라가 잠시 쉬다가, 소변이 보고파자자 그 자리에서 그냥 소변을 보아 버렸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떠 흐르던 섬이 그 자리에 딱 멈추어 버렸다. (또는 임신한 여인이 큰 섬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야, 저기 섬이 떠온다>고 소리치며 손가락질을 하였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떠내려오던 섬이 그만 그 자리에 멈춰버렸다) 그 후론 아무리 조류가 세어도 섬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이 섬이 바로 지금의 비양도라 한다.

본고에서는 이 비양도 전설을 대상으로 일본, 중국, 한국본토 등에 산재되어 있는 그와 유사한 설화의 분포와 변이양상을 살피고 향유층들의 섬에 대한 관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공통요소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비양도 전설이 갖는 제주문화적 특성과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양도 설화의 위상도 아울러 추구하려 한다.

2. 섬이동 설화의 분포 양상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움직일 만한데 멈추기>라는 항목으로 88개의 설화가 채집되어 있다. 이들의 내용은 대개가 산, 섬, 바위 등이 움직여 오는데 여자가 그것을 보고 저기 산이 움직여 온다고 하자 그 자리에 멈췄다는 이야기로 일관되어 있다. 이것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총 수	산이동	기 타		총 수	산이동	기 타	섬이동
서 울	1	1		경 북	17	13	4	13
경 기	3	3		경 남	44	26	5	
강 원	6	2	4	전 북	4	3	1	
충 북	3	2	1	전 남	4	3	1	

이 표에서 산 또는 섬이 움직이다 멈췄다는 설화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경남에서만 13편의 섬이동설화가 산전되는데 이는 특히하게도 거제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거제도에서 채록된 설화는 15편인데 2편은 산이동설화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 무인도에 얽힌 섬이동설화이다. 결국 제주도 비양도 설화와 더불어 한국에서 발견되는 이들 地體移動 설화는 크게 1. 산이동설화 2. 섬이동설화라는 두 갈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의 경우를 보면 섬이동설화는 일본의 기카이도(喜界島)의 전설과 천지창조 설화, 미야코도(宮古島) 설화 등에서 나타나고 산이동설화는 중국고대신화에 나타난다. 이의 내용은 뒤에서 살피겠지만 地體가 떠다닌다는 설화는 동양 전역에서 발견되는 설화의 유형이 된다.

3. 섬 이동 설화의 관념

중국에서는 列子 湯問篇에 보이는데 바다 동쪽에 존재한 五神山은 떠 흐르던 산이었다. 또 史記 封禪書에 의하면 기원전 4세기 경부터 齊의 諸王이 사람을 시켜 말해에 三神山을 구하게 했는데 이것도 떠 흐르던 산이었다. 이들은 先秦시대의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떠 흐르던 산, 섬은 淮南子나 山海經에도 보인다. 이것들로 미루어 보아 이 관념은 중국에 있어서의 원초적 관념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大分縣의 東國岐郡 姫島村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랜 옛날 뜬 섬으로 해상을 흘러다니고 있었다. 어느 곳에서인지 한 여신이 나타나서 떠 천발로(모친본으로) 이 섬을 묶어 멈추게 했다. 그 띠를 묻은 무덤을 千本塚이라 한다. 지금도 이 무덤을 파서 띠를 파내면 또 이 섬이 떠 흘러간다고 한다.」

九州의 남단에 이어진 사쓰난제도로 부터 유구열도에 걸쳐 이 흐르는 섬 설화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기카이도(喜界島)>의 전설에는 한 여인이 바닷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더니, 수평선 쪽에서 자그마한 섬이 흘러내려왔다. 여인은 깜짝 놀라서, 빨던 붉은 속옷을 들어 흔들니까, 섬이 그 자리에 멈추어 버렸다고 하고, 한 異傳에는 임신한 여인이 빨래하다가, 속옷을 들어 흔들니, 흘러오던 섬이 물 속에 잠겨 버렸다고도 한다. 더 남부로 내려와 미야코(宮古)島 설화를 보면 宮古本島の 平安名岐쪽에서 섬이 흘러왔으므로 신이 여자에게 그것을 붙잡도록 말했는데 <베를 한번만 더 짜고요>라고 하는 사이에 來間島 쪽까지 가서 멈췄다고 하는 전승이 있다.

이 설화 역시 비양도 전설의 내용과 너무 유사하다. 섬이 떠 다니고 여인의 기이한 언행으로 인해 멈추게 된 것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壺岐島, 姫島, 菴美大島 등의 예에서 나타나는데 일본의 것만 공통요소를 몇 개 들면

1. 섬이 흘러다닌다 2. 여성의 몇개의 언행에 따라 현재의 곳에 멈췄다. 이것은 비양도 설화와 동일한 모티브이다.

다음은 거제도에서 전승되는 설화를 보자.

「아낙네가 첫 아이를 낳고 아침밥을 끓여놓고 밖에 나가보니 큰 섬이 하나 뚝뚝 떠 오고 있었다. 얼른 들어와서 그 여자는 부지깽이로 부엌문을 세번 두드리며 “범벅섬 아 범벅섬 아 떼 데 가지 말고 게 앉아라.” 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이름을 범벅섬이라 한다.」

이 역시 비양도 전설과 같이 섬이 떠 다니다 여인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멈춰서고 있다. 이들 설화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추출된다.

1. 섬 내지 국토가 바다 위에 떠 있다. 2. 그 국토가 떠 흐른다. 3. 떠 내려 오던 국토가 여인의 언행때문에 정지한다. 이 모티브 중 1,2를 國土浮動觀이라 한다면 이는 동양 삼국의 공통요소이지만, 3은 한국과 일본에만 공통하는 사항이다. 중국의 경

우는 산이동 관념이기에 이를 배제시키면 일본과 제주, 거제와의 모티브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제주와 일본은 고대에 밀접한 문화관계에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 국토 곧 섬이 浮動, 표류한다는 사고는 그들의 생활양식, 다시 말하면 어선, 어로 생활에서 얻은 표상을 국토에 적용시켜 이해한 듯하다. 즉 어선의 부동, 표류 등이 그대로 국토관에 반영된 것이다.

한일 양국의 국토부동관이 밀접함은 언어면에서도 방증된다. <섬>을 일본어로 <시마>라 하니, 그 모음이 다를 뿐 같은 어원의 발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섬은 <島>의 뜻 외에 <立, 停止>의 의미가 명사화한 것이다. 이것은 섬이란 본래 떠 내리는 것이 정지하여 선 것이라는 고대의 국토관에 근원하여 이루어진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 설화에는 설문대할망이라는 거인이 있었는데 물장오리라는 <창터질물> 곧 밀이 없는 깊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도 역시 물 위에 섬이 떠 있기에 바다가 없는 깊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관념이다. 이로써 이 국토부동관적 설화가 한일 문화의 수수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설화임을 알 수 있겠다.

섬이 떠 흐른다는 관념이 여자의 언동에 의해서 그 자리에 멈췄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남성 중심의 어로문화가 여성 중심의 농경문화와의 갈등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한다. 새벽에 배가 출발할 때 선원들이 여성을 만나거나 배에 승선하는 것, 수현생, 운전사 등등이 새벽에 여자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들이 관념하는 배는 곧 섬으로 확대된다. 배의 출발이 여자로 인하여 중단될 때 배는 멈춰 서는 것이고 그것은 파선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은 여성으로 인한 배의 정지가 섬의 정지로 의미의 변화를 일으켜 전승된 것이다. 이러한 설화가 일본과 제주, 거제에서 발견됨은 무슨 의미일까.

4. 비양도 설화의 전파

국토부동관을 뜻하는 설화는 크게 산이동설화와 섬이동설화로 나뉜다. 여기서 주류는 섬이동설화이다. 그것은 어로, 어선 생활을 하는 문화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섬이동설화의 발상지는 남방해양민들에게서 발원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해양성의 설화가 남중국 해안을 통해 북상하면서 내륙적 성격의 섬이동으로 변이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남중국 해안을 통해 북상하여 황해를 교두보로 한반도로 유입된다.

또 다른 방향은 해양을 통한 이동으로 해류와 태풍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적도 북부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가 일본의 큐우슈우 남부로 들어가면서 난세이(南西) 제도에 섬이동설화를 남기고, 또 하나의 흐름은 제주도의 서쪽 곧 비양도를 거치면서 섬이동설화를 전파시켰다. 이 흐름은 거제도, 대한해협을 지나 동쪽으로 흘러간다. 따라서 이들 섬에 남아있는 섬이동설화는 남방제문화의 전파경로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하여 산이동, 섬이동설화가 서로 충돌하게 되면 향유층들의 합리적인 사고로 인해 섬을 태하든가, 산을 태하든가 혹은 바위로 변이를 일으키든가 혹은 여성을 인해 섬 또는 산이 멈췄다고 하는 모티브들의 수수관계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남방문화의 유입은 제주도의 영등할망을 모시는 내방신 숭배사상, 삼성신화, 또 본토의 許王后, 탈해설화의 箱舟漂流話 등에서 그 방증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의 비양도 설화는 남방문화의 유동경로, 나아가서 남방 해양민 문화의 일본에의 전파경로를 증명해 주는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5. 결 어

한국본토에서 전승되는 국토부동설화는 이상의 논의결과로 보면 동남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 광범위한 설화의 유형으로 해양어로 문화권에서 발원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섬이동설화가 남중국으로 유입되어 내륙으로 들어간 것은 산이동설화로 변이를 일으키고, 또 태풍의 이동이나 쿠로시오 해류의 이동경로를 따라 전파된 것은 일본의 남서부나 제주도 비양도를 거쳐 거제로 유입되고 이를 통해 다시 본토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은 산, 또는 바위의 이동으로 변이현상이 일어남을 밝혔다.

섬이동설화에 나타난 관념은 국토부동관이었다. 이는 해양어로민들의 문화의 양상을 반증하는 것이었으며 내륙으로 유입되었을 시는 주변 대상이 섬이 아닌 산이기에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 산이동으로 변이되었다.

결론적으로 비양도 설화는 남방문화의 유동경로, 나아가서 동남아시아의 남방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증명해 주는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이동경로는 고고학, 언어학, 해양학, 민속학 등 여러 과학의 學際的 연구가 진전될 때 더욱 확실한 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 坵, 「濟州道 周邊 海流에 關한 研究의 現在와 未來」, 「濟州島研究 제 4 집」, (제주도연구회, 1987).
-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7).
- 「떠 흐른 섬」, 「제주시 19」, (제주시, 1972).
- 「古代神話와 한국문학의 원류」,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서울특별시, 경기도편).
- 雄谷治, 「東アジアの流れ島傳説について」, 「口碑文學國際研究發表會 概要」,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5).
- 大林太郎, 「記紀の神話と南西諸島の傳承」, 「日本神話」,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有精堂, 1970, 소화 45).
- 森 三樹三郎, 「中國古代神話」, (清水弘文堂書房, 1969, 소화 44).